
가시연꽃

강 상 준(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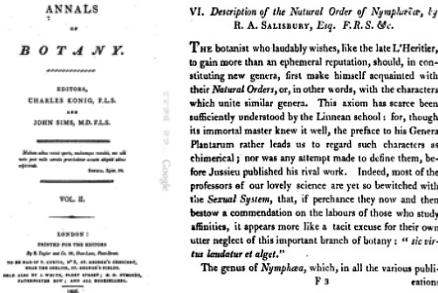
∴ 이름의 유래

식물들의 이름을 보면 재미있는 것도 많고 또 그 다양함에 가끔은 놀랄 때가 있다. 무엇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붙여지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식물의 전체적인 형태, 식물기관(잎, 꽃, 열매 등)의 특징, 생활습성, 색깔, 서식지, 신화(전설이나 설화), 심지어는 냄새까지도 원용한 이름들이 있다.

해안이나 계곡에 주로 사는 식물은 “갯”이라는 접두어를 붙인다. 갯메꽃, 갯방풍, 갯버들 등이 그것이다. 구름국화, 구름채꽃, 구름제비난처럼 구름이 머물거나 지나가는 높은 산에 사는 식물에는 “구름”이라는 것을 붙여 지으며, 광릉요강꽃, 단양쑥부쟁이, 한라솜다리과 같이 처음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된장풀, 누린내풀, 노루오줌처럼 “냄새”를 이용하기도 하며, 바늘영경귀, 털단풍, 가는오이풀과 같이 식물체의 “외관적인 형태”를 고려하여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가시연꽃(*Euryale ferox* Salisbury)도 그러하다. 가시연꽃은 1806년 영국의 식물학자 살리스버리(R. A. Salisbury)가 영국 런던에서 발견되는 <식물

학 연보(Annals of Botany)>란 학술지 2권에 “수련과의 자연분류(Description of the Natural Order of Nymphaeaceae)”란 논문의 73~74쪽에 그 형태적 특징의 기술과 서식지를 발표함으로써 현대적인 학술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806년 발행된 식물학 연보(II) 및 Salisbury의 논문 일부》



《1812년 스케치한 가시연꽃 (Curtis 식물학잡지)》

가시연꽃의 학명(學名, Scientific name: 학술 편의상 붙인 세계적인 공통의 이름)은 그리스(Greece)의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에서 차용된 이름인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원시바다의 해신(海神) 포르키스(Phorcys)와 여신(女神) 케토(Ceto) 사이에 스테노(Stheno), 에우리알레(Euryale), 메두사(Medusa)라는 세 딸이 있었는데, 학명에 쓰인 <에우리알레>는 두 번째의 딸 이름이다. 세 딸 중 가장 예쁜 메두사는 다른 신(神)과 동침했다는 이유로 페루세우스(Perseus) 신(神)에 의해 살해 당했으나 나머지 두 딸은 영원히 죽지 않았다.

동생 메두사가 살해되어 죽자 언니인 에우리알레는 소(牛)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었다고 한다. 메두사를 제외한 두 딸은 얼마나 사악(邪惡)하고 못생겼는지 머리는 독(毒)이 짙 찬 뱀의 머리를 닮았고, 송곳니(犬齒)는 예리하고 날카로웠으며, 날개가 달려 있고 낫쇠 손톱이 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무서운 괴물(Gorgon)로서 그 눈을 쳐다보는 사람은 즉시 돌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신 페루세우스》



《메두사》



《에우리알레》

가시연꽃(*Euryale ferox* Salisbury)의 속명(屬名)인 *Euryale*는 바로 그리스 신화의 “에우리알레”에서 유래한 것이다. *Euryale*는 그리스어로 <가시가 많다>는 뜻이나, 마치 <괴물 고르곤(Gorgon)과 같다>는 의미에서 차용했다고, <살리스버리>는 어원을 밝히고 있다. 또 <넓은 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종소명(種小名) *ferox* 역시 그리스어로 <가시가 많은 또는 굳세고 단단한 가시가 많이 있는>의 뜻이다. 실제로 가시연꽃은 잎의 양면, 잎자루, 꽃 등 식물체 모두에 날카로운 가시(刺針)가 많이 나 있어 만지기도 어렵고 찢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Salisbury는 최초로 이 식물에 학술적인 이름을 처음으로 붙여준 명명자(命名者)라는 뜻이다.

∴ **가시연꽃의 생활**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한다는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가 그러하듯이 가시연꽃도 세계 1속(屬, Genus) 1종(種, Species)뿐인 1년생 수생식물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 동북부 지역에서 자라는 동아시아의 고유종(固有種)이며 특산종이다. 가시연꽃은

덥거나 건조하거나 상관없이 추운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가시연꽃의 속성을 보면, 연못, 웅덩이, 저류지 등 얕은 물이 있는 곳에서 서식하는데 닭 머리 모양(鷄頭狀)의 밝은 자주색 예쁜 꽃이 핀다. 잎은 둥글며 잔주름이 많고 잎의 앞면은 진한 녹색이고, 잎자루는 잎 뒷면 중앙에 붙어 있다. 잎 뒷면의 색깔은 앞면과 달리 자주색을 띠고 있으며, 잎의 직경은 평균 65cm이나 1~2m인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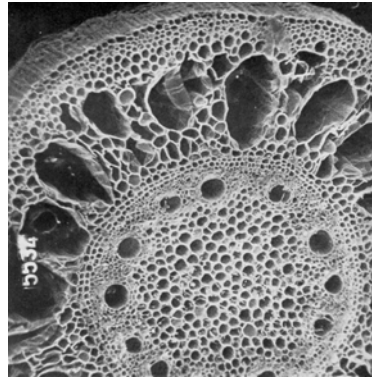
충북 보은군 둔덕 저수지에서 가시연꽃의 잎 면적을 측정해 보았더니 평균 4,240cm², 최고 9,499cm²이었다. 잎은 둥근 접시 모양을 하고, 질감은 솜이나 양털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으며, 물위에 떠 있는 잎, 줄기, 꽃에는 길이 1~2cm의 예리한 가시가 촘촘히 나 있다.

잎자루를 잘라서 횡단면을 보면, 그 속에 비어 있는 관(官)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이 관모양의 구조는 잎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구조를 통기조직(通氣組織, Aerenchyma tissue)이라 부른다. 물밑의 바닥 토양은 물로 꽉 채워져 있어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低酸素, Hypoxia) 또는 무산소(無酸素, Anoxia) 조건임으로 뿌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통로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들락날락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잎은 낮에 수면 위에서 햇빛을 받아 가열되어 식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압력이 생성되는데, 이 작은 압력은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기체, 특히 산소를 이 통기조직을 통해서 뿌리 쪽으로 밀어 내어 뿌리가 호흡에 이용토록 해준다. 한편, 완전히 성숙했거나 혹은 늙은 잎은 공기를 압축하여 뿌리 쪽으로 밀어낼만한 능력이 모자라므로 뿌리에서 호흡으로 생성된 기체, 즉 이산화탄소를 뿌리로부터 통기조직을 통해 식물체 외부로 내 보내는 역할을 한다.

가시연꽃뿐 아니라 침수식물(Waterlogged plant)은 대부분 이런 조직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연뿌리(蓮根)를 보면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구멍이 통기조직인 것이다.



《연근(연뿌리)의 통도 조직》

《통도 조직의 SEM 현미경 사진》



《충북 보은군 둔덕지의 가시연꽃 서식지》



《충북 괴산군 덕실 소류지의 가시연꽃 서식지》



《둥근 접시모양의 주름 많은 잎》



《밝은 자주색의 꽃》



꽃이 피는 시기는 7~8월로 덩이줄기(塊莖)에서 꽃자루(花柄, Flower stalk)가 수면까지 올라와 1개씩 피는데, 한 개체에서 10여개의 꽃자루가 나온다. 꽃자루의 길이는 1~1.2m, 굵기 10~12cm로 가시가 많이 나 있으며, 꽃은 오전 10시 경 피었다가 오후 2시경에 닫히므로 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3~4시간으로 매우 짧다. 꽃은 활짝 피는 것이 아니라 반쯤 피고 2~3일 동안 피었다 닫혔다 반복하다가 꽃이 지면서 물속으로 슬며시 가라앉은 후 물속에서 열매가 익는다.

열매는 자가수정(自家受精, Self-fertilization: 동일한 개체에서 생성된 암수 배우체가 수정하는 것)이란 생식방법으로 맺힌다. 하나의 열매에는 50~100여 개 정도의 씨앗(種子)이 들어있으며, 씨앗은 열은 자홍색(紫紅色)의 반점이 있는 우무질(寒天質)로 된 스펀지와 같은 열매껍질(假種皮, Aril)에 싸여있고, 익은 씨앗은 물위로 방출된 뒤 부력에 의해 떠다니다가 물곰팡이나 기타 수생미생물에 의해 우무질이 썩게 되면 물밑으로 조용히 다시 가라앉는다. 씨앗의 크기는 8~15mm, 무게 1.2~1.5mg의 검은색이다.

가시연꽃은 일년생이므로 바닥에 가라앉은 씨앗의 일부는 이듬해 봄이 되면 즉시 발아되는 것도 있지만 씨앗의 수명은 긴 편으로 2~3년 휴면(休眠)한 것도 발아를 잘 한다. 그러나 발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씨앗의 발아나 생육하는 환경조건이 다른 수생식물에 비해 그 최적범위가 좁기 때문에 쉽게 멸종될 가능성이 높으며 생활력이 약한 식물이다.

∴ 수심이 알아야 하는 가시연꽃

가시연꽃이 서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수지에 가 보면 주로 물가의 얇은 지역이나 독을 따라서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충북 보은군 삼승면 둔덕리 저수지의 조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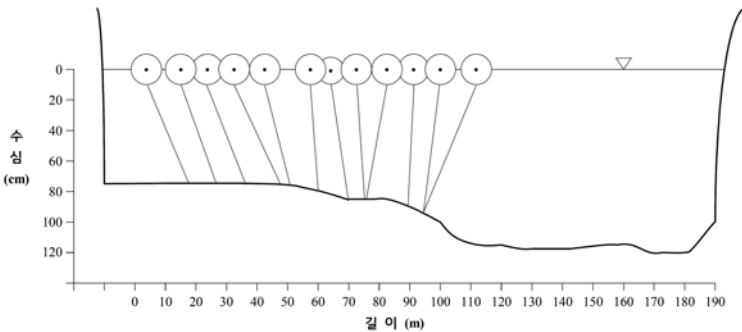
2002년 여름, 대형의 고무보트를 타고 저수지의 장경(長徑)과 단경(短徑)의 수심을 10m 간격으로 측정하면서 가시연꽃의 분포 범위를 조사해 본

결과, 가시연꽃은 수심 1m 이내의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시연꽃의 잎자루(葉柄, Petiole)나 꽃자루(花柄)의 최대 성장 길이가 1m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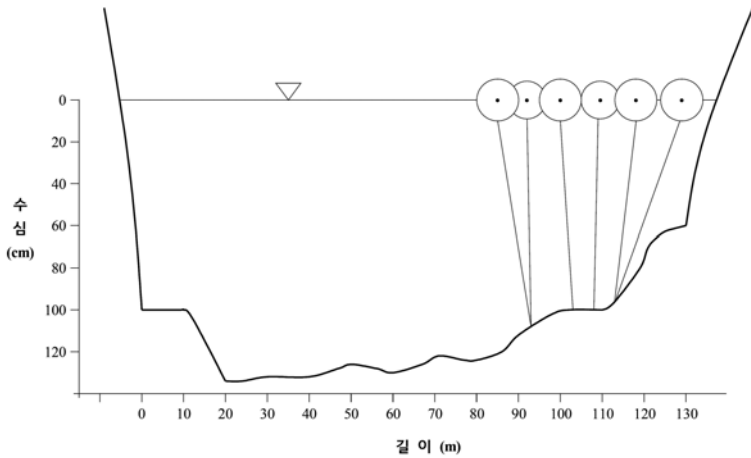
2005년 여름 어느 날. 보은군청의 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금년에는 둔덕 저수지에 그 많던 가시연꽃 군락이 거의 보이지 않으니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나는 “작년과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했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바로 그것이 가시연꽃이 보이지 않는 원인”이라고 대답해 준 일이 있다.

즉, 가시연꽃의 잎자루는 최대 1m 전후 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성장기간 동안 수위가 1m 이상 높아진 수체(水體)가 오랫동안 정체(停滯)됨으로서 수심이 알아지지 않는다면, 수면 위까지 전개되지 못한 잎은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자연히 물속에서 수중 분해되어 버린다. 잎자루는 수위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면서 잘 자라지만 일정 수위가 넘으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시연꽃은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그 해 광합성에 의해 합성하고 축적된 영양분을 이용해서 잎자루가 성장하여 잎이 전개되어야 하고, 또 꽃이



《가시연꽃의 수심에 따른 분포도(장경, 長徑)》



《가시연꽃의 수심에 따른 분포도(단경, 短徑)》

피어 열매를 맺어 종자번식(種子繁殖, Seed reproduction)의 생활사(生活史, Life history)를 완성해야 하는데 식물체 자체가 분해되어 버렸으니 당연히 가시연꽃은 멸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심이 깊은 저수지의 경우 일정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반드시 물을 방류하여 1m 전후의 수심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멸종위기식물인 가시연꽃의 번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시연꽃의 이용

가시연꽃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는 3,000년전 부터 재배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양쯔강(Yantze River) 유역의 쿠아후 퀴아오(Kuahuqiao), 헤무다(Hemuda) 및 티안루오산(Tianluoshan)의 신석기시대 유적지에서 가시연꽃 씨앗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서 그 시대 사람들도 가시연꽃의 씨앗을 채취하여 식용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 북부지방의 판잡(Punjab) 지방에서는 녹말이 짙 찬 하얀 씨앗을 팝콘처럼 굽거나 요리를 해서 먹으며, 비하르(Bihar) 지방에서는 마카나(Mak-

hana)라고 해서 신에게 제공하는 신비로운 제물로 공양을 하기도 한다. 구 소련(Soviet Union)에서는 우표(Stamp)로 사용된 적이 있다.



《가시연꽃의 씨앗(왼쪽)과 팝콘처럼 튀겨낸 모습(중앙 및 오른쪽)》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가시연꽃은 1938년 일본인 中井(Nakai)박사에 의해 대구지방에서 처음 채집되어 <날카로운 가시가 많이 나 있는 수련과(睡蓮科)의 식물>로 연꽃처럼 연못이나 웅덩이 진흙 속에 서식하는 가시가 많은 연꽃, 즉 <가시연꽃>이라 이름이 붙여졌고, 일본에서는 도깨비연(귀연: 鬼蓮, 오니바스: オニバス), 중국에서는 검실(茨實: 도깨비 열매), 영어로는 Fox nut(여우 열매)라고 부른다.

20세기 초 우리나라에서 가시연꽃이 발견된 이후, 가시연꽃에 대한 연구라고는 서식지를 찾아내거나 혹은 어느 지역에 까지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의학(韓醫學) 재료로 이용하기 위한 조사 수준이 고작이었다.

지금까지 가시연꽃의 서식지로 알려진 곳은 경남 창녕 우포늪을 비롯하여 함안 유전늪, 경북 경산의 연지, 충남 홍성의 역재 저수지, 경주시 불지(부처못), 광주시 전평제, 전남 신안군의 섬(용소, 龍沼) 등 이었지만, 가시연꽃 자체의 아름다움이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한약재로서의 가치가 알려진 후 지금은 여러 곳에서 그 서식이 확인되어지고 있다.

경남의 창녕 우포늪(람사르 등록 습지, 1998년 3월 28일)을 제외하면 특정한 보호 대책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한반도 내 절멸위험이 매우 높은 수생식물이다.

가시연꽃은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217종 중 보존 1순

위에 해당되는 매우 진귀한 식물이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특정 야생동식물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식물이다.

가시연꽃은 환경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으며 외부의 교란이나 오염 등 악영향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하여 생육 조건이 까다로운 종으로 최적한 환경이 유지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지는 취약종(脆弱種, Vulnerable species)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릉 강동면 하시동의 풍호(楓湖)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동화력발전소로 부터 배출되는 폐무연탄으로 매립되면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흔한 연꽃군락이 자라고 있다.

급속한 수질오염, 저수지의 매몰 또는 인접 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그 분포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서 특정한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인공적으로 가시연꽃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조성에 관심을 둔 곳이 여럿이 있어 다행한 일이고, 특히 관광적인 가치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 논밭을 이용하여 인공재배를 하면서 유전적으로 크기가 작은 왜성(矮性) 가시연꽃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니 더더욱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 시(詩)와 그림의 대상인 가시연꽃

가시연꽃의 이름다움에 취한 시인묵객들은 그 아름다움을 시로 읊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이 많다. 아래에 남가람 시인과 임보 시인의 <가시연꽃>을 읊은 시를 소개해 본다.

가시연꽃

남가람

진수령 태생 감추려

넓다랗게 잎 피웠습니다

소금쟁이들 조차 엽신여겨

온몸 가시를 돌우고

떠다닙니다
꽃피면 다 아실터이지요
아기바람에도
바리바리
꽃잎 떨어주고 말
연보라색
얇은 수집음입니다.

가시연꽃

임보

가시연은 멧방석 같은 넓은 잎을 못위에 띄우고
그 밑에 매달려 산다
잎이 집이며, 웃이며, 방패며 또한 문이다
저 연못 속의 운수행각, 유유자적의 떠돌이
그러나 허약한 놈이라고 그를 깔봐서는 안 된다
그를 잘못 건드렸다간
잎과 줄기에 감춰둔 사나운 가시에 찢려
한 보름쯤 앓게 되리라
그가 얼마나 매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는
꽃을 피울 때 보면 안다
자신의 육신인 두터운 잎을 스스로 찢어
창으로 꿰고 올라온 저 가시투성이의 꽃대
그 끝에 매달린 눈 시린 보라색, 등대의 불빛
누구의 길을 밝히려
굳은 성문을 열고
저리도 아프게 내다 보는가

또한 사라져가는 가시연꽃의 운명을 걱정하는 글도 있다. 컬럼니스트 고규홍은 <별종에 관한 단상>에서 가시연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침에 꽃을 열고 동산위로 해 넘어가면 잎을 닫는 가시연꽃이 드디어 피었다. 여느 때보다 두 달쯤 늦었다. 조마조마하여 기다린 탓에 늦었어도 고맙다. 우리 곁에서 차츰 멀어져가는 멸종위기식물이다. 사람과 욕망 그를 절멸 앞으로 내쳤다.

멸종 앞에 놓인 가시연꽃은 차가운 물속에서 무참하게 생명을 돌워내고 오로지 아침 해만 기다린다. 햇살 퍼지면 살그머니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보랏빛 생명 노래를 아주 잠깐 외장쳐 부른다. 참혹하게 멸종에 접어든 순결한 식물의 절창이다. 아름답지만 애처롭다」.

∴ 세계에서 가장 큰 연꽃

수련과의 연꽃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은 대왕연꽃(*Victoria regia* Lindley)이라는 것으로 큰가시연꽃, 여왕연꽃, 큰빅토리아연꽃이라고도 부른다. 1801년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독일인 Haenke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그 후 아마존강 지류의 정체된 수역, 우각호 등 여러 곳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학술적인 이름은 1836년 영국의 식물학자 존 린들리(John Lindley)가 빅토리아(Victoria)여왕을 기념하기 위하여 명명하였다. 1858년 데븐셔 공작(Duke of Devonshire)이 재배종(栽培種)을 여왕께 선물로 바쳤는데, 여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런던 교외의 시든햄(Sydenham)에 수정궁(Crystal Palace)을 지어 재배하도록 하였고 또 큐식물원(Kew Garden)에서 연구하도록 하였다.

지금은 브라질, 콜롬비아, 가이아나 지역에서 자라는 것을 *Victoria amazonica* (Poepp) J.C. Sowerby,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등에서 자라는 것을 *Victoria cruziana* A.D. Orb.의 두 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타 교잡종

도 6종이나 되며, 인공적으로 재배되어 상품화 하고 있다.

남미 아마존 강 유역 깊은 열대림 정글 속의 어느 인디언 부족에서는 대왕연꽃에 대한 슬픈 전설(Legend)이 전해진다고 한다. 그 사연을 들어보자.

「어릴 적부터 인디언 부족의 족장인 아버지로부터 “달은 진정한 전사이다(Moon is a really warrior)”라고 늘 달의 전사(戰士, Moon Warrior)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예쁜 한 공주가 있었다. 그 달신(月神)은 용맹하고 아름다운 전사(戰士)였다고 한다. 시집갈 나이가 되자 족장인 아버지는 부족의 용감한 한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지만, 공주는 오래전부터 <달의 전사>에게 사랑에 빠져 있었으므로 달신인 전사가 반드시 자기에게 올 것으로 확신하고 시집가기를 거절했다.

꼭 찬 만월이 되면 그 공주는 달의 전사를 보기 위해 높고 파란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달만 쳐다보곤 했다. 가끔은 달을 보기 위해 조용한 정글 속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 보려고 했지만, 사랑하는 전사는 커녕 달빛조차 끌어안을 수가 없었다.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지나 몇 해가 지나도 그 공주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단순한 환상이었다.

어느 날 밤.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휘영청 밝은 달이 정글 속 높이 솟아올랐다. 그런데 밝은 달빛이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순간 눈에 들어왔다. 그 달빛이 바로 사랑하는 전사로 착각하고는 붙잡으려고 정글 속으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고요한 호수 가에 도착했다. 이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호수위에 비치는 달빛뿐이었다.

달의 전사가 목욕을 하려고 호수에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고는 물속으로 그만 들어갔는데 불행하게도 공주는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달빛은 그 공주를 물의 별(Star of water)로 변신을 시켰고 그 <별>이 바로 밤에만 피는 대왕연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왕연꽃은 구름 한 점 없고 만월(滿月)인 밤에만 꽃잎을 활짝 펼쳐 핀다」는 것이다. 대왕연꽃은 “순수한 영혼(Purity of Heart)”의 의미인 것이다.

대왕연꽃은 앞의 앞면은 녹색, 뒷면은 짙은 붉은색을 하고 있으며, 앞의

직경은 무려 3m에 이르고 꽃의 크기도 40cm나 되는 큰 연꽃으로서 잎의 가장자리가 15cm나 거의 직각으로 위로 젖혀져 있어 어린아이가 올라가 앉아 있어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한다. 대왕연꽃도 가시연꽃처럼 잎이나 꽃자루 등에 가시연꽃처럼 가시 비슷한 털이 많이 나 있으며, 꽃의 색은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가 있다.



《대왕수련의 잎 모양과 하얀 꽃》

대왕연꽃의 서식 조건은 기온과 수온이 29℃(85°F)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야외 연못이나 저수지에서 살아갈 수 없어 제주도 서귀포시의 <여미지 식물원(如美地 植物園)>, 경기도 시흥연꽃테마파크, 관곡리 등 몇몇 지역에서는 온실 속에서 키우고 있으므로 그런 곳에 가면 대왕연꽃을 쉽게 볼 수가 있다.

∴ 맺는 말

가시연꽃은 1년생 수생식물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 동북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특산종으로서, 연못이나 얇은 저수지 등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멸종위기식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귀중한 유전자원 중 하나이다.

이 수생식물은 외부의 교란이나 오염 등의 영향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약하고 더욱이 인접 환경의 영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취약한 식물로 적극

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식물이다.

전국의 여러 저수지나 연못 등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나, 수질오염, 저수지의 매몰 또는 인접 지역의 개발 사업 등으로 그 분포지가 점점 줄어들 수 있으므로 아름답다거나 희귀식물로만 보지 말고 우리와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가시연꽃 자체는 물론 이들의 삶터인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